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주택공급 혁신모델’ 임대형 주택 도입	뉴사우스웨일즈
문화·관광	4	‘도시 우호적·지속가능한 관광’ 새 전략 수립	베를린
산업·경제	7	4차 산업혁명 따른 혁신촉진 등 담아 ‘성장전략’ 손질	오사카
사회·복지	9	8월부터 유치원 교육비 완전 무료화	베를린
	11	특수교육 필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11개 정책대안 제안	런던
	13	‘폭염피해 줄이기’ 공공시설, 쿨링센터로 개방	로스앤젤레스
행재정·교육	14	국제교류·다문화공생 목표 ‘국제평화조례’ 제정	요코하마
환경·안전	16	“그린루프 정책, 지역산업 발전·도시조망 개선 효과”	토론토
	18	수소연료차량 보편화 프로젝트 추진 ‘가속 페달’	파리
도시교통	20	메인 스트리트 전체가 차량접근 통제된 ‘보행자 천국’	보르도
도시계획·주택	23	인필 하우스, 오래된 도심 주거지 개발 모델로 인기	에드먼턴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주택공급 혁신모델’ 임대형 주택 도입

사회·저가주택 통합 공급... 정부·민간 공동소유 프로그램으로 추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이나 중하위 소득계층이 많이 찾는 저가주택(부담가능한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개발업체와 협력해 이 2가지 임대형 주택을 통합 공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Communities Plus) 모델을 도입함. 이 제도는 호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소유로 추진되는 임대형 주택공급 프로그램임

- 개요

-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중하위 소득계층이 주로 찾는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은 꾸준히 수요가 있음
- 주정부는 이 2가지 유형의 임대형 주택(Build to Rent)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 개발업체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
 - 시드니를 중심으로 주정부 관할 지역에 4만 채의 민간주택, 5백 채의 저가주택, 2만 3천 채의 사회주택을 개발·공급
 - 총 220억 호주달러(18조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커뮤니티 플러스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제시
 - 1)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입주 유인 강화
 - 2) 사회주택 주거 질 개선: 사회주택을 민간·저가주택과 함께 지어 교통·편의시설·공공공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를 개선할 계획
 - 3) 사회주택 거주자 지원 강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시드니 시내와 외곽지역에 사회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 주요 내용

- 지역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주택공급
 - 1)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에는 대규모 사회주택 새로 건립
 - 2) 기존 대규모 사회주택 지역은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될 수 있도록 재구성
 - 3) 그 외 지역에는 중소규모(20~300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혼합 커뮤니티를 창출

- 커뮤니티 플러스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평가받는 3가지 이유
 - 1) 사회주택과 저가주택의 혼합 제공
 - 저소득층은 물론 중하위 소득계층의 수요도 동시에 충족
 - 혼합 커뮤니티를 구성해 사회주택의 주거 질을 향상
 - 2) 순수하게 임대형 주택만을 제공해 개인 소유나 매매 목적 활용이 불가능
 - 고용·교통 거점 지역 거주자는 주로 주택 구매보다 임차 수요가 강하며, 임대형 주택은 이들의 욕구를 고려한 결과물
 - 호주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임대형 주택공급 프로그램
 - 3)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
 - 사회주택과 저가주택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개발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자, 주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40년간 무상 대여해주고 개발을 장려
 - 민간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해 40년 동안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후에는 주정부 소유로 반환



[그림 1] 커뮤니티 플러스 임대형 주택 공급모델 개요

- 향후 계획
 - 주정부의 예상대로 민간 개발업체와 투자자가 활발히 참여할지, 기대효과를 달성할지를 두고 일부에서 우려와 비판을 제기
 - 주정부는 개발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무상제공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정부는 민간 개발업체와 투자자를 겨냥한 설명자료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홍보
 - 앞으로 12개월간 민간 개발업체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
 - 커뮤니티 플러스는 시드니 레드펀(Redfern) 지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

<https://www.facs.nsw.gov.au/about/media/releases/nsw-government-the-first-to-launch-build-to-rent>

<https://www.communitiesplus.com.au/>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ta/5625d102e4b0040b09643cc5/506/assets/docs/180327-CP-Industry-Briefing.pdf>

<https://www.communitiesplus.com.au/major-sites/redfern>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문화·관광

‘도시 우호적·지속가능한 관광’ 새 전략 수립

독일 베를린市 / 문화·관광

- 독일 베를린市는 관광객 증가로 주민 갈등이 증가하자,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꾀하면서도 시민에게 우호적인 관광문화를 확립할 목적으로 새로운 ‘베를린 관광전략 2018+’(Tourismuskonzept 2018+ für Berlin)를 수립함. 또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 배경
 - 베를린시의 관광산업은 연간 매출액 115억 유로(14조 8천억 원), 상근직 직원 23만 5천 명이 종사하는 도시경제의 주요 요소
 - 관광산업은 시의 일자리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며,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와 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하는 등 도시발전에 전략적 가치가 큰 산업
 - 하지만 관광객뿐 아니라 유입인구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
 - 시정부는 바르셀로나와 암스테르담 등 다른 도시에서 먼저 발생했던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른 주민부담 문제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관광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목표는 베를린 관광의 질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조화롭게 높이는 것
 - 관광·유흥지 밀집구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객과 관광업체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지원 조치를 마련
 - 베를린시 12개 자치구의 관광 잠재력을 고르게 개발해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
 - 관련 주체가 오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관광전략을 마련
 -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베를린시 관광공사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업체들이 관련 정치인·공무원·연맹·조직 등과 총 60회의 회의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전략을 수립

전략 가이드라인	10가지 추진방안
1. 거버넌스 - 관광을 여러 기관·주체와의 협업 과제로 설정 2. 질적 가치 창출 -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관광발전전략 수립 3. 참여 - 도시우호적 관광을 함께 만들어가기 4. 모니터링 - 베를린시의 변화하는 관광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5. 키츠(Kiez: 관광객이 몰리는 주거지역)를 기반으로 한 관광 조정 - 공간적 차별화를 진지하게 고려 6. 협업을 테마로 디지털화, 포섭, 무장애화 등 추구	1. 관광객의 동등한 분산과 지역별 관광 잠재력 개발을 목표로 한 관광산업 조정 2. 손님접대 문화의 관리와 육성 3. 참여와 인식의 민감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관광 수용성을 증대 4. 다양한 키츠 문화 보존과 공공공간 관리 5. 도시우호적 베를린 관광의 브랜드화 6. 문화관광의 잠재력 개발 7. 숙박시설의 조정 - 공간적 분산과 가격 구조 개선 8. 지속적 관광을 위한 인프라와 모빌리티 구축 - 자전거 관광 확대, 수로 관광 강화 9. 컨벤션·콘그레스 비즈니스의 관광 잠재력 확대 10. 관광 안전 강화

[표 1] '베를린 관광전략 2018+'의 가이드라인과 추진방안

- 사례: 페어·키츠(fair.kiez) 사업
 -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구역인 동시에 주민의 거주지인 키츠를 관광과 주민의 삶이 공평하게 공존하는 도시 우호적 관광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 키츠는 주로 19세기 건축된 시내의 저렴한 임대주택 밀집지구 중에서 베를린의 분단과 재통일을 전후해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어 관광적 가치가 발생한 작은 구역들이 해당
 - 관광붐과 함께 이 지역에 유흥업소와 관광객이 몰려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 페어(Fair)는 공공공간에서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그룹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균형과 대화를 추구하자는 의미를 표현
 - 페어·키츠 사업은 현황조사, 조정과 중재, 홍보의 3가지로 진행
 - 1) 현황조사: 해당 키츠 지역 내 건물의 1층 이용지도 작성, 타깃그룹 확인, 주말·야간 현장조사, 사회공간적 상황 분석 등
 - 2) 조정과 중재: 관련 업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협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마련
 - 3) 홍보: fair.kiez 라벨을 제작해 도시 우호적 관광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관광객과 주민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
 - 도시 우호적 관광을 홍보하는 동영상과 배너 제작, 소음·쓰레기·오염을 주의시키는 안내물 제작

- 젊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인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구(區)부터 페어·키츠 캠페인 시작
 -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바르샤우어 교각, 베를린 장벽 갤러리, 메르세데스 벤츠 실내경기장 외벽에 대형 홍보물을 게시하고 주차권 자동발매기 등에 스티커 부착



[그림 1] 페어·키츠 홍보활동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671025.php>

<https://www.berlin.de/ba-friedrichshain-kreuzberg/politik-und-verwaltung/service-und-organisationseinheiten/wirtschaftsfoerderung/tourismus/artikel.501494.php>

<https://www.berlin.de/ba-friedrichshain-kreuzberg/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teilung.581056.php>

<https://www.berlin.de/sen/web/presse/aktuelles-presseschau/artikel.671107.php>

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

산업·경제

4차 산업혁명 따른 혁신촉진 등 담아 ‘성장전략’ 손질

일본 오사카市 / 산업·경제

- 일본 오사카市는 2010년 수립한 ‘성장전략’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수정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대변화를 반영한 인재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하는 ‘오사카 성장전략’ 2018년 개정판을 공개

- 오사카시 성장전략 개요
 - 오사카시는 2010년 12월 2020년까지의 성장 목표와 중·단기 실행전략을 담은 ‘오사카 성장전략’을 수립
 - 실질성장률 연평균 2% 이상, 2020년 외국인 여행자 수 1,300만 명, 화물취급량 2020년까지 간사이공항 123만 톤, 한신항 590만 TEU 등의 목표 제시
 - 성장전략 시행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경제·산업이 회복되었으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고용의 질 개선 등 앞으로의 개선 목표도 더 분명해 짐
 - 이후 시정부는 사회·경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구체적 전략 등을 꾸준히 수정·추가
 -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초고령화·인구감소 사회 도래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 등 주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촉진과 생산성 향상,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육성을 중점 과제로 하는 ‘오사카 성장전략’ 2018년 개정판을 공개

- 주요 내용
 - 성장의 바탕이 되는 요소 5가지를 설정하고, 요소별 전략을 마련
 - 5가지 성장요소는 집객력, 인재력, 산업·기술력, 물류·인류(人流) 인프라, 도시재생
 - 내외의 집객력 강화
 -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목표로 환경 정비(국제적 엔터테인먼트 도시 창출)
 - 문화·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매력 창출
 - 간사이(関西) 지방이 하나 되는 관광 포털화 추진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재력 강화
 - 여성·고령자·청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재가 계속 활약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안전망 정비
 - 국제경쟁력을 견인하는 우수인재 육성, 외국의 고도전문인재 채용 확대
 - 인재육성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노동시장 구축
- 강점을 활용하는 산업·기술 변화
 - 세계적인 건강·의료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른 건강의식 강화 추세를 주시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서 건강·의료 관련 산업을 창출
 - 미래의료국제거점 설립 검토, 관련 신산업 창출, 연구기관 지원 등
 - 오사카의 강점을 활용한 첨단기술산업의 강화와 혁신 촉진
 - 국가전략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기업 집적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출, 스마트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도입 촉진, 대학 연구기관 지원 등
 -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터 등 제조업 관련 신기술을 바탕으로 오사카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생산성 향상,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 대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오사카 중소기업, 연구자·기술자 등이 협력하는 연구개발이나 제품·기술개발 등의 프로젝트 창출 지원
-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 상승에 대응을 강화하고 물류·인류 인프라를 구축
 - 간사이 국제공항과 한신항의 국제 허브화
 - 고속도로와 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해 물류·인류를 뒷받침
- 도시 재생
 - 기업·인재·정보가 모이고 혁신이 일어나는 도시 만들기
 -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 만들기
 - 새로운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고 환경 선진도시 만들기
 - 녹색을 활용하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 농업을 추진

<http://www.pref.osaka.lg.jp/kikaku/seichosenryaku/>

<http://www.pref.osaka.lg.jp/attach/11876/00000000/2018seichouhonntai.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사회·복지

8월부터 유치원 교육비 완전 무료화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독일 베를린市는 2007년부터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시스템 키타(KITA: Kindertagesstätte)의 학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2018년 8월 1일부터 완전 무료화를 시행함. 또한, 추가 교육비도 상한선을 정하고 아동대비 전문인력의 수를 늘리는 등 교육의 질적 개선도 추구
- 배경
 - 시정부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7년부터 키타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 2007년부터 어린이가 키타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의 비용을 면제했으며, 2010년부터 점차 교육비를 내는 횟수를 줄였음
 - 한 살 미만의 유아 학부모에게는 아직까지 소득에 따른 교육비를 받았지만, 8월 1일부터 완전 무료로 전환
 - 베를린은 독일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 교육을 무료화한 도시가 되었음
 - 베를린을 제외한 독일 지방정부의 1/3은 여전히 유치원 교육비 면제가 없고, 다른 지역의 보조금 지원이나 학비 면제는 부분적으로 제공
 - 2018년 기준 베를린 영유아 학부모는 순소득 대비 1.8%를 키타에 지출하지만, 다른 지역 학부모는 소득의 6~9%가량을 지출
 - “우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가능성을 키우고 유아교육에 투자합니다. 키타는 교육기관이고, 교육은 무료여야만 합니다”
- 청소년부 상원의원 산드라 쉬레스(Sandra Scheeres)
 - 청소년부 상원의원 산드라 쉬레스(Sandra Scheeres)
- 주요 내용
 - 월 23유로(3만 원)의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키타 교육비 무료
 - 추가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월 90유로(12만 원)로 제한
 - 스포츠·언어 등 추가 수업을 받거나 유기농 점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추가 교육·서비스를 30유로(4만 원), 60유로(8만 원), 90유로의 3가지 모델로 차등화했으며,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아동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개선
 - 8월 1일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늘어남
 - 만 2살 이하의 기존 4.25:1(아동:전문인력)에서 4명당 1명으로 개선
 - 만 2살에서 3살 사이는 기존 아동대비 전문인력 비율이 5.25:1이었지만, 5명당 1명으로 증가
- 향후 과제와 계획
 - 여전히 교육의 질과 전문인력의 수가 부족
 -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료화보다 키타의 질을 높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
 -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해 종사자의 스트레스 호소가 많은 편
 - 보육원 수도 부족해 3천 명이 넘는 아동이 아직 키타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 지난 5월 25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가정과 직장의 안정된 양립, 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촉구하는 키타 데모가 열렸음
 - 전문인력 추가 모집과 새로운 보육원 신설 계획
 - 900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모집 중이며, 일반 교육자 외에도 스포츠·연극 등의 특수 교육자도 모집
 - 지난 6월 20일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개의 보육원 신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2천만 유로(25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

<https://www.berlin.de/sen/bjf/service/presse/pressearchiv-2018/pressemitteilung.725378.php>

<https://www.berlin.de/sen/bjf/service/presse/pressearchiv-2018/pressemitteilung.714726.php>

<https://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kindertagesbetreuung/kostenbeteiligung/>

<https://kitakriseberlin.org/>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inderbetreuung-berliner-kitas-werden-ab-uebermorgen-gebuehrenfrei/22862078.html>

<http://www.taz.de/!5520528/>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특수교육 필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11개 정책대안 제안

영국 런던市 / 사회·복지

-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런던 내에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20만 명이 넘게 있는 데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여,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요 이슈에 관한 합리적 정책대안 11가지를 제안
- 배경
 - 런던의 10~21세 인구 중 14%(20만 명 이상)는 특수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으로 파악
 - SEND 학생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들로, 주로 자폐, 언어장애, 시청각 등 신체장애,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 지난 10년간 이 나이대의 SEND 인구가 20% 늘었고, 필요한 특수교육과 지원의 형태도 다양화된 상황
 - 교사·강사 연합의 조사 결과 83%의 학교 선생님은 SEND 학생이 현재 필요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관련 주요 이슈
 - 런던 내 SEND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충분히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3~2014년에 2% 증가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고, 2016~2017년에는 그 부족한 예산 가운데 16%만이 SEND 학생에게 사용
 - 일선 학교, SEND 학생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와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
 - 협력과 소통의 부재는 많은 학교에서 SEND 학생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 SEND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부족한 지원 속에서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
 - SEND 학생의 취업 교육, 사회생활 경험, 취업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
- 정책 대안
 - 칸 시장은 다음 11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SEND 어린이·청소년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함

-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로비(Lobby)
 - SEND 학생 1인당 실질 지원금을 증액하고 사용 시의 유연성을 확보
-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특수교육 학교 수요가 높은 지역에 무료학교를 설립
- 런던 전역에서 관련기관의 SEND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
 -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실제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
- 특수교육 전담센터(SENCOs centre) 설립을 검토
 - 특수교육 전문학교들과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특수교육 학교 수요를 확인하고 지속가능성을 논의
- SEND 학생이 전체 학급의 평균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
 - 다음 교육보고서에서 SEND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개
- 성인 교육예산을 SEND 학생 지원에 활용
- 공공기관 등에서 SEND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
- 민간 기업이 SEND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나아가 기꺼이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
- SEND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 놀이공간 지원
 - 지역 공원에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장비 추가를 검토
- SEND 어린이·청소년과 학부모가 통근버스 운전자와 함께 모여 소통하는 ‘특별한 버스의 날’을 후원
 - SEND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의 하나
- SEND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할 방안 제시

<https://w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london-assembly-publications/special-educational-needs-and-disability-send-provision-london>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ondon_assembly_send_report_final.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폭염피해 줄이기’ 공공시설, 쿨링센터로 개방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사회·복지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낮 기온이 40℃가 넘는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지자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방이 되는 공공시설을 쿨링센터(Cooling Center)로 지정해 운영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
- 배경
 - 로스앤젤레스시 주변은 여름철 낮 기온이 40℃를 넘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
 - 저소득 주거지역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와 산불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시정부는 냉방이 되는 공공시설을 공식적으로 쿨링센터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해 시민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주요 내용
 - 쿨링센터는 주로 지역 공공도서관, 노인정, 커뮤니티센터, 공원 부대시설, 레크레이션 센터,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 등
 - 이들 시설은 대부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독서·취미활동·어린이 특별활동 등을 제공
 - 시정부는 시민에게 쿨링센터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폭염 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전달
 - 도시정보 안내센터 311과 지역 LA County 안내센터 211 모두에서 쿨링센터 이용 관련사항을 안내
 -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쿨링센터 지정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https://www.lacity.org/blog/visit-cooling-center-beat-heat>

<http://wdacs.lacounty.gov/DailyNews/COOLING%20CENTER%20LIST%202017%20rev%2025%2006%2001%202017.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행재정·교육

국제교류·다문화공생 목표 ‘국제평화조례’ 제정

일본 요코하마市 / 행재정·교육

- 일본 요코하마市는 2015년 국제국을 설치해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2018년 6월 15일에는 ‘요코하마시 국제평화 추진에 관한 조례’(横浜市国際平和の推進に関する条例)를 제정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에 공헌하기로 함
- 요코하마시 도시외교 개요
 - 시정부는 2015년 일본 내 20개 정령지정도시 중 최초로 국제국을 설치
 - 국제국은 국제정책부, 국제협력부, 해외사무소(독일, 인도, 중국)의 산하조직으로 구성
 - 해외도시 교류와 국제협력, 다문화공생, 평화공헌, 해외 인프라 비즈니스 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
 - 2016년 2월, 4년(2016~2020년) 중기계획으로 요코하마시 국제전략을 수립
 - 도시 간 국제적 연계·협력 노하우, 각국 정보, 대사관·국제기관 등의 네트워크와 외국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요코하마시 각 사업영역에서 관계당국 간 전략적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017년 3월 시의회는 ‘핵병기 없는 세계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는 각의’(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を強く求める決議)를 전원일치로 채택
- 국제평화조례 제정 배경
 - 국가의 외교활동 외에도 지역과 시민 차원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에 공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세계화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지역분쟁·국제테러·핵무기 등 국제적 위협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
 - 지난 6월 15일 지역과 시민 차원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다문화공생 체재 구축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
 - 조례제정에 앞서 4월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 22일 시의회가 승인

- 조례의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평화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시와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과 국제평화への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역할): 시는 국제평화에 관한 시민의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계발과 교육을 시행한다
- 제3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체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국제교류 추진): 시는 해외 자매도시 등과 우호친선 및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또는 기타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 추진에 노력한다
- 제5조(국제협력 추진): 도시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의 추진을 도모한다
- 제6조(다문화공생 추진): 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에 노력한다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peace/regulation/>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about/guideline/>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환경·안전

“그린루프 정책, 지역산업 발전·도시조망 개선 효과”

캐나다 토론토市 / 환경·안전

- 캐나다 토론토市는 세계적 기후변화와 도시열섬 현상을 비롯한 여러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그린루프’(Green Roof) 정책을 추진함. 그 결과 2016년에는 북미 전체 도시 중 가장 많은 면적의 그린루프를 설치한 도시가 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시조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음
- 배경
 - 지속가능한 환경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성장과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건축 정책이 요구
 - 특히, 그린루프 등을 활용해 도시를 녹화하는 인프라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 그린루프는 도시의 경제적 이익 창출, 빗물조절 효과, 열섬현상 감소, 냉각 등의 효과가 있음이 라이어슨 대학(Ryerson University)의 실험으로 검증
 - 그린루프는 건축물의 지붕 일부 또는 전체에 방수, 배수, 여과시설을 갖추고 흙을 덮어 식물이나 야채 등을 자라게 하는 친환경 건축기술
- 주요 내용
 - 2006년 2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토시에 적합한 그린루프의 기준을 설정하고 한계점을 분석하는 워크숍을 개최
 - 그린루프 정책의 주요 실행전략
 - 지원프로그램: 토론토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실행했으며, 그린루프 설치 시 1㎡당 10캐나다달러(8천 원)를 지원
 - 당시 총 3,000㎡의 그린루프를 설치를 지원했고, 현재는 에코루프(Ecoroof) 지원프로그램으로 발전
 - 시정부나 관련 기관 소유 건축물 지붕의 50%를 그린루프로 변경
 - 최초로 요크 시민센터에 204㎡, 글래드스톤 도서관에 176㎡, 토론토 식물원에 223㎡의 그린루프를 설치

- 그린루프 설치를 장려하는 새로운 승인과정을 마련
 - 전략과 지침 개발, 교육·홍보 활동
 -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그린루프’(Biodiverse Green Roof) 지침을 개발
 - 2009년부터 북미 최초로 ‘그린루프법’ 시행
 - 총 바닥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때는 지붕 공간의 20~60%를 그린루프로 설치
 - 그린루프 설치면적의 비율은 건물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
 - 산업용 건물은 지붕공간의 10% 또는 2,000㎡ 미만을 그린루프로 하거나, 100%를 쿨루프(Cool Roof: 열을 흡수하지 않는 흰색 등으로 칠한 지붕)로 만들고 빗물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함
 - 에코루프 지원프로그램: 그린루프와 쿨루프 설치 시 지원금 제공
 - 에코루프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열섬현상 감소, 빗물조절, 공기오염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등의 효과
 - 그린루프는 건축물 심의결과에 따라 1㎡당 100~1,000캐나다달러(8만~80만 원), 쿨루프는 1㎡당 2~5캐나다달러(1,600~8,000원)를 지원
 - 생물다양성 그린루프 지침을 개발
 - 그린루프 설치가 건축물의 개선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
- 정책 효과
- 이주민 증가와 맞물려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 토론토시는 도시 내 녹지공간 축소, 열섬현상 발생, 탄소배출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
 - 시정부가 그린루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한 결과 2016년에는 북미 전체에서 그린루프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가 되었음
 -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한편, 도시 경관 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이바지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planning-development/official-plan-guidelines/green-roofs>
<https://greenroofs.org/green-roof-industry-survey>

고한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수소연료차량 보편화 프로젝트 추진 ‘가속 페달’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市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를 공공이 나서서 보급하는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차량 제로 프로젝트’(ZEFER: Zero Emission Fleet Vehicles for European Roll-out)에 가입해 수소연료전지차 택시를 2020년까지 600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시내 중심부에 설치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차 보편화를 위해 노력 중
- 배경: ZEFER 프로젝트
 - 파리, 런던, 브뤼셀의 3개국 수도가 연합해 수소연료전지차 보편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 참여 도시에서 대규모로 수소연료전지차 보편화 실험을 진행
 - 총 2,600만 유로(340억 원)를 들여 택시나 경찰차량 등 해당 도시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18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도입할 계획
 - 수소연료전지차는 물을 제외하면 온실가스를 비롯한 어떤 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100% 친환경차
 - 수소가스를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
 -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민간에서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이 먼저 FCEV 차량을 사용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 보급을 이끌어낸다는 전략
 - FCEV 관련 기업들이 180대의 FCEV 차량을 비롯해 재정지원도 제공
 - 영국 런던시에서 2018년 5월 초 친환경 택시회사인 ‘그린 토마토 카’(Green Tomato Cars)가 처음으로 25대의 FCEV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
- 파리시의 FCEV 차량 도입 노력
 - 파리시는 FCEV 택시 Hype(이프) 5대를 파리기후협약이 열린 2015년 12월 6일에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
 - Hype는 2017년 40대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75대까지, 2020년에는 600대까지 보급할 목표
 - 파리기후협약 기간에 첫 수소충전소를 파리시 정중앙에 설치하고, 이후 인근 지역인 베르사유시와 오를리 공항에 각각 2개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한 ‘탈디젤화’ 노력
 - FCEV 차량 보편화 정책은 파리기후협약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대기오염 감소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임
 - 파리는 2020년까지 파리시 공공영역에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2014년부터 실행 중
 - 디젤차의 신규 도입을 줄이고 기존 디젤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중
 - 2014년 150대의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2015년에는 300대의 디젤차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로 개조
 -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에는 파리시청의 물류·교통 담당 부서의 전기차를 FCEV 차량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개시
 - FCEV 차량 도입으로 파리가 얻는 효과는 크게 2가지
 - 하나는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인이 차지하는 생태학적 파괴의 범위를 의미)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
 - 그 외에도 쓰레기 수거 차량과 버스 등에도 친환경 연료 차량을 보급 중
 - 파리시 쓰레기 수거 차량의 78%는 이미 천연가스로 운행 중
 - 2025년까지 파리의 모든 버스를 전기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바꾸는 ‘2025 버스플랜’을 추진 중
 - 최종 목표는 2025년에 모든 버스의 80%를 전기 버스나 FCEV 버스로, 20%는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것

<https://www.paris.fr/actualites/la-ville-de-paris-roule-de-plus-en-plus-propre-3892>

<https://www.paris.fr/actualites/la-ville-aide-au-developpement-de-l-hydrogene-5802>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메인 스트리트 전체가 차량접근 통제된 ‘보행자 천국’

프랑스 보르도시 / 도시교통

- 프랑스 보르도시는 한때 차량 위주의 도시정책을 시행했지만, 이후 도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세인트 까트린(Sainte-Catherine) 거리를 유럽 최장의 보행 거리로 조성하는 등 보행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 결과 현재 보르도 메인 스트리트 전체는 차량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
- 배경
 - 1950~1960년대 자가용 유입으로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도시정책 시행
 - 트램 등 대중교통과 보행로를 줄여가며 차량 위주로 도로를 조성
 - 1950년대만 해도 보행자가 주를 차지했던 세인트 까트린 거리는 1960~1970년대에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구분 없이 뒤섞인 복잡한 거리로 변모
 - 1977~1979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샤흐방 델마스 당시 보르도 시장은 세인트 까트린 거리를 보행자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르도시 최대최장 쇼핑거리로 조성
 - 1984년 2단계에 걸친 대공사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도 가장 긴 보도거리(1,250m)로 새단장
 - 2000년, 알랭 쥐페 보르도 시장은 곳곳의 낙후되고 방치된 보르도의 도시공간에 대대적인 외과수술식 접근으로 보르도를 완전 탈바꿈
 - 외과수술식 접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주어진 콘텍스트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고치는 방식으로, 지금의 도시재생과 유사한 개념
 - 여기서 말하는 ‘도시 탈바꿈’은 없던 모습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도시에 원래부터 있었던 숨겨지거나 가려진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작업
 - 2000~2003년 프랑스 유명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의 프로젝트에 따라 세인트 까트린 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



[그림 1] 세인트 까트린 거리의 1975년 풍경(왼쪽)과 현재(2015년)의 풍경 비교

- 주요 내용

- 2007년 중심시까지 전체 1,810헥타르(18.1km²) 면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걸을 수 있는 도심’을 보르도시 도시교통정책의 주요방향으로 확정
 - 보르도의 대표적인 저속이동수단인 ‘트램웨이’ 운영을 2004년 재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도심 차량 줄이기에 큰 효과
- 현재 보르도의 메인 스트리트 전체는 아침 시간의 배달·운송과 공사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진입이 통제



[그림 2] 보르도 메인 스트리트 지도(파란색으로 표시된 길이 모두 보행자거리)

- 메인 스트리트 보행자 거리의 전체 길이는 1,250m
 - 백화점, 애플스토어 등 대형매장을 포함한 250여 개의 업체가 주변에 입점 중
 - 2015년 18,000㎡ 규모의 야외형 쇼핑단지 ‘프로르나드(산책) 세인트 까트린’ 개장으로 더 많은 보행자가 관광객과 쇼핑객으로 유입
 - 세인트 까트린 거리와 한 블록 간격으로 나란히 달리는 트램웨이 덕분에 접근성이 뛰어남
- 향후 계획
- 시정부는 더 많은 보행자 광장과 거리를 조성 중
 - 오는 2019년 완공을 앞둔 장 자크 보스 다리는 폭 45m 가운데 2차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보행자 전용으로 구성한 도보 다리
 - 현재 공사 중인 보르도 역사 주변 재개발 구역도 제2의 세인트 까트린으로 불릴만한 규모의 보행거리를 포함하고 있음
 - 이외에도 시내 곳곳의 로터리·사거리 등을 재정비해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
- 시사점
- 본래 거리는 보행자의 것이었지만, 20세기 이후 자동차의 도심 대량유입으로 변화
 -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이 빈번해지자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등으로 ‘거리’가 ‘차도’로 바뀌었으며, 보행자는 길 바깥쪽으로 밀려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음
 - 다시 세기가 바뀌어 이제 도시의 삶은 속도전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도시들도 보행자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는 추세
 - 아름다운 도시는 그 안을 자유로이 거닐 수 있을 때 그 값어치가 나타나는 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함

<https://www.sudouest.fr/>

[https://fr.wikipedia.org/wiki/Rue_Sainte-Catherine_\(Bordeaux\)](https://fr.wikipedia.org/wiki/Rue_Sainte-Catherine_(Bordeaux))

<http://www.bordavenir.fr/2015/09/06/levolution-de-la-place-du-pieton-a-bordeaux/>

<http://www.bordavenir.fr>

<https://www.20minutes.fr/bordeaux/2170271-20171116-bordeaux-etonnant-projet-rue-bordelaise-grande-rue-pietonne-20m-large-300m-long>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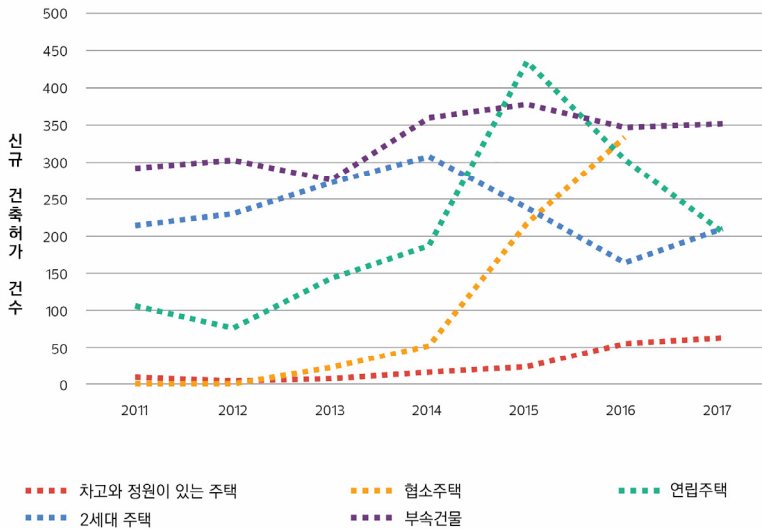
도시계획·주택

인필 하우스, 오래된 도심 주거지 개발 모델로 인기

캐나다 에드먼턴市 / 도시계획·주택

-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최근 10년간 16만여 명이 새로 유입되는 등 인구의 가파른 상승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원하는 소규모 핵가족의 요구가 크게 늘어남. 이에 따라 기존 도심지의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경제적인 개발 모델인 인필 하우스(Infill Housing)이 오래된 도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발생
- 배경
 - 에드먼턴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22% 늘었고, 주택가격도 9년간 16% 상승
 - 석유산업 호황으로 2001년부터 빠르게 인구가 늘기 시작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약 73만 명에서 2016년 약 89만 명으로 16만 명 증가
 - 주택가격은 2009년 평균 32만 5천 캐나다달러(2억 7,800만 원)에서 현재 37만 5천 캐나다달러(3억 2천만 원)를 기록
 - 새로운 주택 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 주택 재건축과 외곽지역 확대 등의 대책은 여건상 시행이 어려움
 - 도심지 인근 마을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로 자연적·사회적 환경이 우수하지만,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
 - 하지만 주택가격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시 집주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
 - 에드먼턴 가구의 66%는 현재 구도심 주택의 평균가인 36만 캐나다달러(3억 800만 원)의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시정부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축 주거지가 도시 외곽으로 확대되면 인프라 구축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인식
 - 도심 주거지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인필 하우스
 - 도심주거지역의 신규 건축허가 건수는 답보상태이지만, 인필 하우스 개발에 해당하는 협소주택(Narrow lot) 건축허가 건수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 인필 하우스 건축허가는 2013년 22건의 승인을 시작으로 꾸준히 많아져 2016년에는 334건의 허가가 승인

- 하지만, 2013년 도심지 인근의 글레노라(Glenora) 마을에서 한 주민이 신청한 인필 하우스 건축이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반대도 많았음



[그림 1] 2011~2017년 에드먼턴 도심지·구주택가의 신규 건축허가 건수

- 인필 하우스 개요
 -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입주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
 - 도심지 내 소규모 나대지를 사거나 기존 대지를 2등분 해서 토지를 마련하고, 터파기와 같은 기초작업을 가급적 생략해 건축비를 절약하는 개발방식
 - 기존 주택의 잉여 대지에 소규모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식도 포함
 - 북미 개인주택의 대지 폭은 평균 15m인데, 이를 2등분 한 7.5m의 공간에 2개의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가 일반적
 - 넓은 의미에서 ‘대지의 재활용’(Land Recycling)으로도 해석 가능
 - 기존에 갖추어진 상하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교외확장(Urban Sprawl)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어 경제성이 강조된 개발방식
 - 시정부가 권장하는 인필 하우스의 건축 신청 과정
 - 1) 이웃에게 디자인, 건축일정, 주변의 변화 등에 관해 설명
 - 2) 건설현장 관리 확인서를 포함한 인필 하우스 개발 허가서를 작성
 - 3) 건축 허가서와 각종 관련 허가서 제출

- 인필 하우스링 부작용

- 기존 주변 주택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 많아, 미관상 부작용이 있으며 이웃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예: 그림 2)
-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중산층이 구매할 수 없는 고가 주택으로 전락
- 신도시보다 비싼 택지 가격과 건축허가·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건축지연 비용이 주요 요인
-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인필 하우스링은 현재 시 전체 주택 평균가를 웃도는 40만 캐나다달러(3억 4,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최고가는 67만 캐나다달러(5억 7,300만 원)로 집계



[그림 2] 에드먼턴 인필 하우스링 주택

<http://urbanagehomes.com/>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infill-skinny-homes-1.4689007>

<https://www.cityofedmontoninfill.ca/public/download/documents/48322>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infill-1.4732723>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infill-skinny-homes-1.4689007>

<http://www.cbc.ca/news/canada/edmonton/garneau-residents-upset-by-skinny-infill-apartments-1.3935427>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